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김동구 도의원, 도 건설교통국 행감서… “도, 항소심 전략 조속 공개하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전북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교통부가 피고라고 해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었다”며, “도민이 수십 년 간 염원해 온 새만금 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1심 소송에서 총 8차례 변론에 참석만 했을 뿐,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내지 못한 채 국토부와 함께 소극적인 태도를



잡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무안 국제공항 조류충돌 사고를 가까에서 지켜보고도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과정에서 전북도는 조류충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 논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은 갯벌과 해안, 철새 이동 경로가 중첩된 지역인데, 도는

일관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싸움에 전북도는 피고도, 대변자도 아닌 ‘방관자’였고 1심 패소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꼬

이를 고려한 입증 자료 한 건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패소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항소심뿐이다. 도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전북도가 어떤 논리로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항소심 전략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도민의 바람은 분명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과 활주로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민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전북도가 구경꾼 행정을 계속한다면 도민의 꿈은 활주로에 서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인천광역시 경원재 바이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해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 익산시민에게 민생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하겠다”

‘익산시장 출마’ 조용식 전 전북청장, 첫 공약 발표… “시 자체 예산 효율화로 재원 확보”

“익산시 26만7,000여명의 전 시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조용식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임기 내 전 시민 1인당 10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북경찰청장을 역임한 조 출마예정자는 12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을 내걸고 익산시장에 당선되면, 시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 예산 의결을 통해 임기 4년 동안 전 시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출마예정자는 “이 같은 정책은 자영업자에게 힘을 주고 서민들의 소비 진흥을 위한 마중물로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키기 위한 보편 복지형 기본소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보편 복지의 철학과 기본소득형 민생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조 예정자는 민생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 “추가 세금 인상도 부채 증가도 없이 익산시 자체 예산의 구조조정과 효율화만으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사전에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 방안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12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향후 지역의 미래를 여는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 예정자는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익산시 발주 공사 및 물품·자재 구입 등 임차로 진행되는 나찰차역 일부와 건축재정 운영을 통한 일반 운영비를 10% 절감하고,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으로 충분히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예정자는 “민생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민생지원금카드, 다이토음카드 등으로 필요에 맞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민생이 우선인 도시, 시민이 주인인 익산을 반드시 실현할 각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조 예정자는 이번 공약을 시작으로 ‘익산형 지역경제 뉴딜플랜’과 ‘시민참여형 예산개혁 방안’ 등 익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더 이상 흔들려선 안돼”

민주 안호영 의원 “균형발전 핵심 인프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장)은 12일 “새만금 공항은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업으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 완공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최근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새만금 공항이 그 범주에 포함될까 우려된다”며 “새만금 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에는 이미 다섯 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 공항만 수익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항은 인재와 기술, 물류를 잇는 전략 자산이자 지

역의 생명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문제를 이유로 지역 발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조류충돌이나 습지 훼손 우려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지역공항 없이는 지방이 제조업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며 “일본은 30개 지방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육성해 관광객을 분산시켰다. 우리도 수도권 중심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과 서남해안권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북이 아시아 AI 수도로 도약하려면 항만·고속도로·철도에 더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법원이 도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전북의 새로운 하늘길을 도민과 함께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임승식 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특구 지정 7년이 지났지만, 전북자치도의 체합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유명무실한 말산업특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승식 의원은 “2018년 전북자치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말산업 선도지역’을 기대했지만,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이제는 말산업의 양적 확장보다 실질적 수요 확보와 산업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이병도 도의원 “지방도 CCTV 실시간 대응 못해… 무용지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1)이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에 설치된 CCTV의 모니터 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전국 지자체가 도로관리 CCTV의 실시간 관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 관리용 CCTV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실시간 관제체계 없는 안전행정을 보여주지 못해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도로관리용 CCTV는 단순한 관제 장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런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에 도로관리용 CCTV를 총 115대 설치해놓고 있지만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은 물론 전담 직원도 없어 실시간 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그야말로 사후 관측용에 불과하며 고장이나 오작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덧붙여 이 의원은 “최근 찾아진 국지성 집중호우, 하천제방시설과 도로시설의 노후, 긴 장마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고위험 상황임에도 소 잃고 외양간 격으로 안전불감증 행정 여전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농협중앙회 주 사무소 전북으로 이전

민주 이성운 의원, 법안 대표발의… “균형발전 상징적 성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이 12일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 아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속 추진되고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가 여전히 수도권에 머무는 것은 국가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성운 의원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은 이미 농촌진흥청과 함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4대 과학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다. 이 외에도 농

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23개나 분포해 있어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거점지 역으로 손꼽힌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농생명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농협 비상임 임원에 대한 임기제한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현행법상 상임조합장은 임기 제한이 있으나, 비상임조합장은 이사·감사 등은 별도의 제한이 없어 장기집권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비상임 임원도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해, 지역농협의 폐쇄적 운영과 채용비리·일감 몰아주기 등 고질적 문제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이성운 의원은 “농협중앙회 이전은 전북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농생명수도 전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발전이 곧 전북의 회복임을 명심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농업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혁신을 혁신하겠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NEW 파티 비전’ 실천 계획 제시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지역위원장이 12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조국혁신당의 혁신을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중앙 정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서부터 정치 혁신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조국혁신당의 새 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임 후보는 “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강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내려다보는 정치가 아닌, 지역당원의 힘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좌 혁신은 늘 변방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지역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NEW 파티 비전’을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제시하며, ‘개방성·다양성·연결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뉴 민주주의가 바로 당이 지향해야 할 미래”라고 말했다.

임 후보가 제시한 4대 혁신 구상은 젊은 정치인의 패기와 실천력을 엿보게 한다.

첫째, ‘뉴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정당 혁신’으로, 당원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플랫폼을 운영해 토론과 합의의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둘째, ‘공천 혁신’으로 배심원제·오디션 방식 도입과 함께 청년혁신가 30% 공천을 보장하고, 공천혁신 대상



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셋째, ‘정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돈·정보·조직 격차 줄이기 정책으로 선거문자 공영제 도입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넷째,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역순회 당원 원탁회의와 국민참여형 만민공동회를 열어 한국형 사회권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임형택 후보는 “혁신의 해답은 지역에 있다”며 “현장에서 검증된 지역 대표가 중심이 되어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당대표 후보와 함께 2030

년을 향한 대항해를 계획하며 “함께 혁신하고 함께 승리하겠다”는 다짐으로 출마의 변을 마무리했다.

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대표에는 조국 후보가 단독 등극했으며, 최고위원은 임형택 후보를 포함해 정춘생 정책위의장,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조위원장, 신장식 의원 등 4명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2인을 선출한다.

젊은 정치인 임형택 후보의 도전은 지역 기반 정당의 가능성과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그의 출마는 단순한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작하는 진짜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향한 실천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1~23일 온라인 투표를 거쳐 2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국당원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슬로건은 ‘진심으로 다시, 혁신으로 전진’이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2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북을 전략 지역으로 삼아 전북에서 다수의 단체장과 의원이 선출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위해 조국 후보를 비롯한 최고위원 출마자 5명이 오는 17일 오후 3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한다고 임형택 후보는 밝혔다. /이만호 기자